

# 무주군평생교육원 개원

### 주민참여·인문교양·문화교육 등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무주군평생교육원이 29일 문을 열었다. 평생교육원은 급변하는 평생학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게 폭넓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조성된 것으로, 무주군은 총 사업비 3억3천만 원을 투입해 1,031㎡ 규모(지하1층, 지상3층의 구 국제화교육센터 리모델링)에 대강당과 중앙의실, 실습실, 컴퓨터실, 소강의실, 평생학습카페, 상담실 등을 갖췄다.



무주군평생교육원 개원식이 29일 열렸다.

무주군평생교육원 운영은 무주군이 직접 맡아 하게 되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전 군민(유치부~성인)을 대상으로 군민참여교육과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기초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민참여교육으로는 '평생학습 반디학교' 과정의 평생학습지도자 역량 강화교육(8월~11월)과 평생교육 관계자 및 군민 역량 강화교육(9월~11월)이 진행되며 ▲직업능력교육으로는 '반디 강사학교(관내 평생교육 강사, 8월 말)'와 '반려동물관리사 양성 과정(9월~11월)'이 개설될 예정이다.

▲성인 대상 '즐거움 영어여행'(실용영어, 9월~12월)과 유치부·초등부 대상 '어린이 영어교실'(체험·놀이 중심, 8월~12월)이 인문교양교육으로 마련되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유희공간을 찾아가는 성인문화교육(~12월)도 진행된다.

▲이외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거점으로 수요자 근접지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양질의 수업 진행을 위해 7~8월 중 프로그램 강사와 학습자를 모집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9일 열린 무주군평생교육원 개원식

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군의 비전은 평생학습을 통해 무주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무주군은 질 높은 교육, 책임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관내 인적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열과 마스크 착용 여부, 방문자 확인,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진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 외에도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과 의원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을 비롯한 각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간판 제막과 함께 시설내부를 둘러봤다.

무주군은 2018년 10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왔으며 무주군의회 역시 같은 해 12월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열정으로 보여 왔다.

지난해 5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국가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정·지원)로 선정된 이후에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주력해왔으며 9월부터는 2020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인 평생학습과실리태이터 '학습반디' 양성 과정 등 8개 사업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평생교육원을 앞으로 군민 평생교육의 플랫폼이자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평생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습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의식 함양, 사회적 경제 중심의 취·창업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할 방침에서 운영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 장수군, 외부울타리 지원·방역시설 구축 현황 조사 등 방역 점검

장수군은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백두대간을 통해 장수군으로 남하될 위험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장수군 내 양돈농가 방역시설은 '빈곤' 수준으로 유지돼 왔으나 강원 영월 양돈장 ASF 발생을 계기로 8대 방역 시설 및 차량출입통제시설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농가의 야생멧돼지 1차 저지선인 외부울타리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해 관내 농가 20호의 울타리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8월 말

까지 농가별 축산차량출입통제유형 및 8대 방역시설 구축 현황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시설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농가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할 계획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모든 접촉자제, 모돈사 소독, 농장 내부부 소독 및 출입차량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백운면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진안군 백운면(면장 김현수)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 동안에는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 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매주 수시로 변호관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춘선, 박영춘)는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위원장과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서비스 지원, 구석구석 온(溫)통네 만들기 운영 추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부귀면이 3분기에 추진할 특화사업인 따뜻한 안방 만들기, 밑반찬 나눔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심의를 기울여 골고루 복지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심사일반 관심 나눔 사업의 꾸준한 홍보 및 모금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상담 및 결연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토론을 펼치는 등 관내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민원 편의 강화

### 민원실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 구축·민원인 전용 팩스기 설치

진안읍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육완문)는 29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편의 강화에 나섰다 밝혔다. 민원실에 음성지원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 구축과 민원인 전용 팩스기 설치가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에 민원인들이 한 번에 물 났 때에는 대기 순서가 뒤바뀌는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에 음성지원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음성지원 순번대기표 발급 시스템은 민원인이 대기 순번과 호출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민원인의 혼란을 막아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 팩스기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팩스를 보낼 때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유료로(장당 200~500원)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즉시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준다.

육완문 읍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문화원, 가야 슬로건 공모전 개최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수가야지킴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가야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슬로건 공모전은 장수군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결과 발표는 9월 17일 장수문화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장수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20자 이내 '슬로건'을 500자 이내 세부 설명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당선작은 지역성·특색성·작품성·활용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총 4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각 사업당 당 250만

원 상당의 간판 교체를 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슬로건은 문화원이 저작권을 가지며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활용에 사용되며, 간판은 장수지역 가야를 홍보 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은 "많은 슬로건 응모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가야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 문화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장수문화원(351.5349)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 농·축·특산품 통합관측행사 추진

진안군은 29일~8월 1일까지 4일간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 전국적인 유통센터에서 진안고원 농·축·특산품 통합 관측행사를 추진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 성남유통센터, 전주점 3개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해소하고, 청정고령지인 진안고원의 특색 5대 품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판로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진안군 농축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29일 첫 날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을 비롯해 관내 농·축·인삼농협조합장, 조공법인 대표 등이 관측행사를 찾아 직접 행사에 참석해 관측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진행 품목은 해발 350m 이상의 준고령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진안고원 농특산물 수박, 잡곡(잡쌀, 흑미 등 약 13종), 김치(포기김치 외 4

종), 수삼·홍삼, 한우·돈육 등 5가지다.

군은 별도판매 매대를 구성하고, 가격할인(타임세일) 및 사골탕 3,000개의 증정품까지 준비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자를 찾아 나설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통합관측행사의 계기로 진안고원 농축특산품 우수성 홍보 및 판로확대 마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